



희소성과 인플레이션의 시대: AI, 부채, 그리고 당신의 돈

기술 유토피아의 환상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

The Great Paradox (거대한 역설):

우리는 AI와 로봇이 가져올 풍요를 기대하지만,
그 입장료는 역사상 가장 비쌀 것입니다.

The Core Argument (핵심 주장):

피지컬 AI 인프라는 막대한 자본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.
이는 '인류 최후의 인플레이션'을 촉발할 것입니다.





 PRESENT

현재

• The Musk Myth

- 로봇이 노동 대체 → 물가 하락 기대
- Inter
- 저축이 필요 없는 유토피아?
- Inter

CAPEX & INFRASTRUCTURE

인프라 투자

물리적 병목
(Physical Constraints)

- 미국 전역 전력망 재구축 필요
- 데이터센터 건설에 전문학적 자금 투입

FUTURE
미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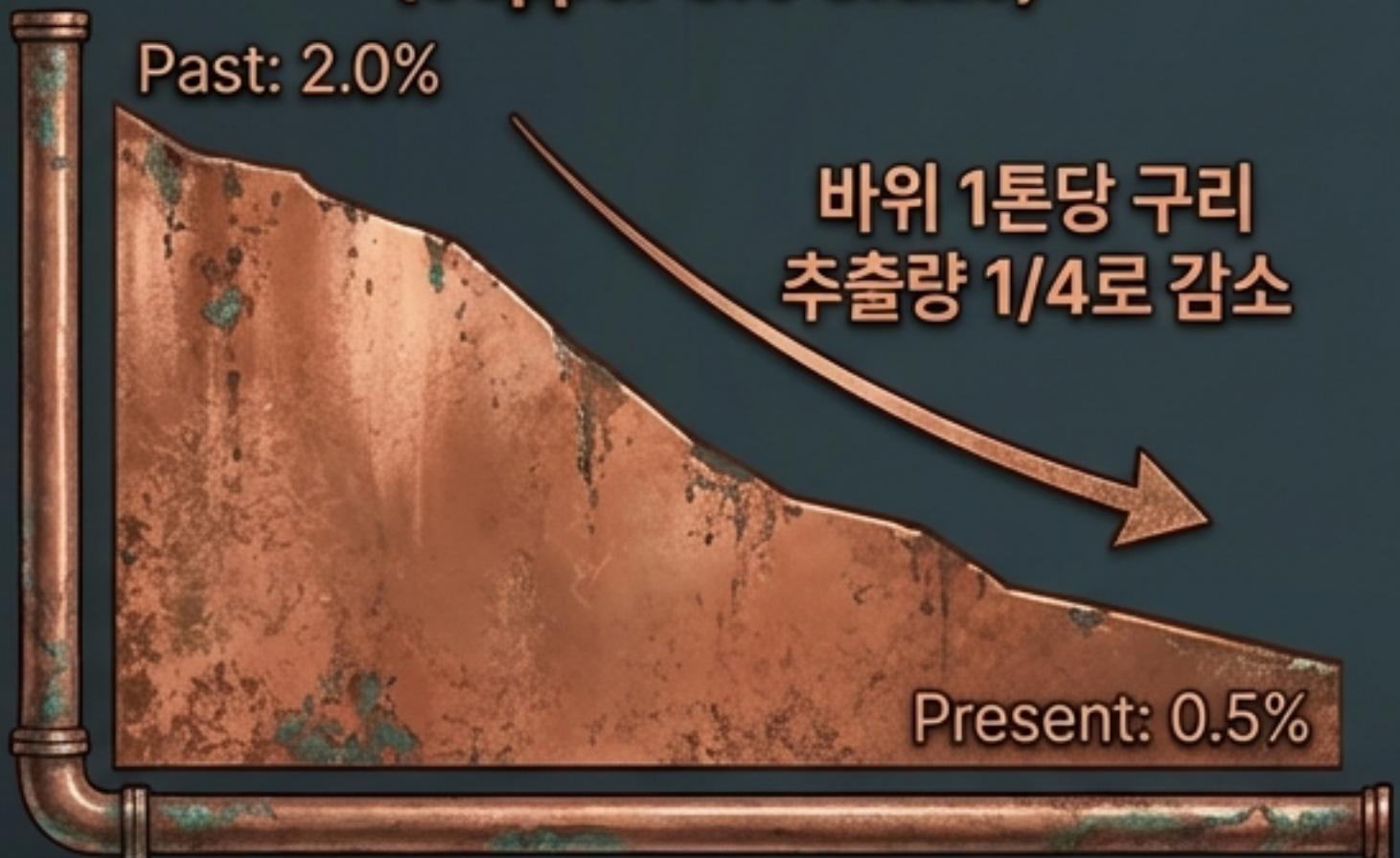
- Cost Reduction
- 물가 하락
(Price Drop)

Immediate Consequence (즉각적 결과): 공급이 늘기 전에 수요(투자)가 폭발하며 물가를 자극하는 병목 현상이 5년~10년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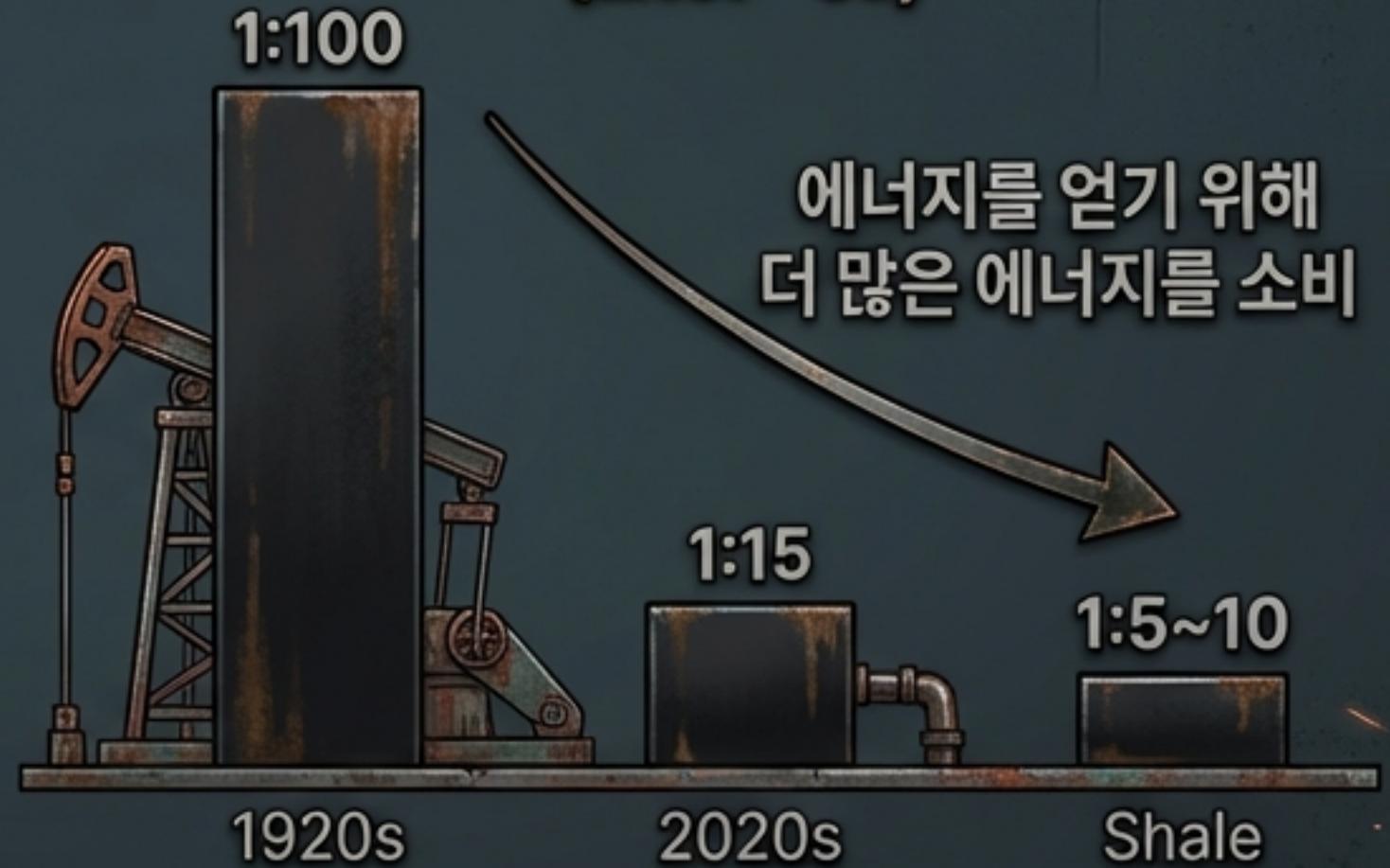
물리학은 경제학보다 우위에 있습니다: 금속과의 전쟁

기술이 발전해도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은 깨지지 않습니다.

구리 광석 함유량
(Copper Ore Grade)



에너지 투자 수익률
(EROI - Oil)



Resource Cliff (자원의 절벽): 로보틱스와 전력망 확충에는 막대한 구리, 은, 니켈, 리튬이 필요합니다.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.

부채의 높: 1985년의 해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

AI 패권 경쟁이 불러온 전례 없는 국채 발행의 시대

Debt/GDP
124%



Debt/GDP 124%

Debt/GDP
100%+



Hidden Debt Crisis

1985 Plaza Accord
(플라자 합의)
- 과거 미국은 독일/일본에
부실을 떠넘겨 생존.
(현재는 불가능)

Why Plaza Accord 2.0 is Impossible: 지금은 유럽과 중국 모두 빚더미에 앓아 있습니다. 미국의 국채를 받아줄 여력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.

연준(Fed)의 딜레마: 돈을 찍어 빚을 막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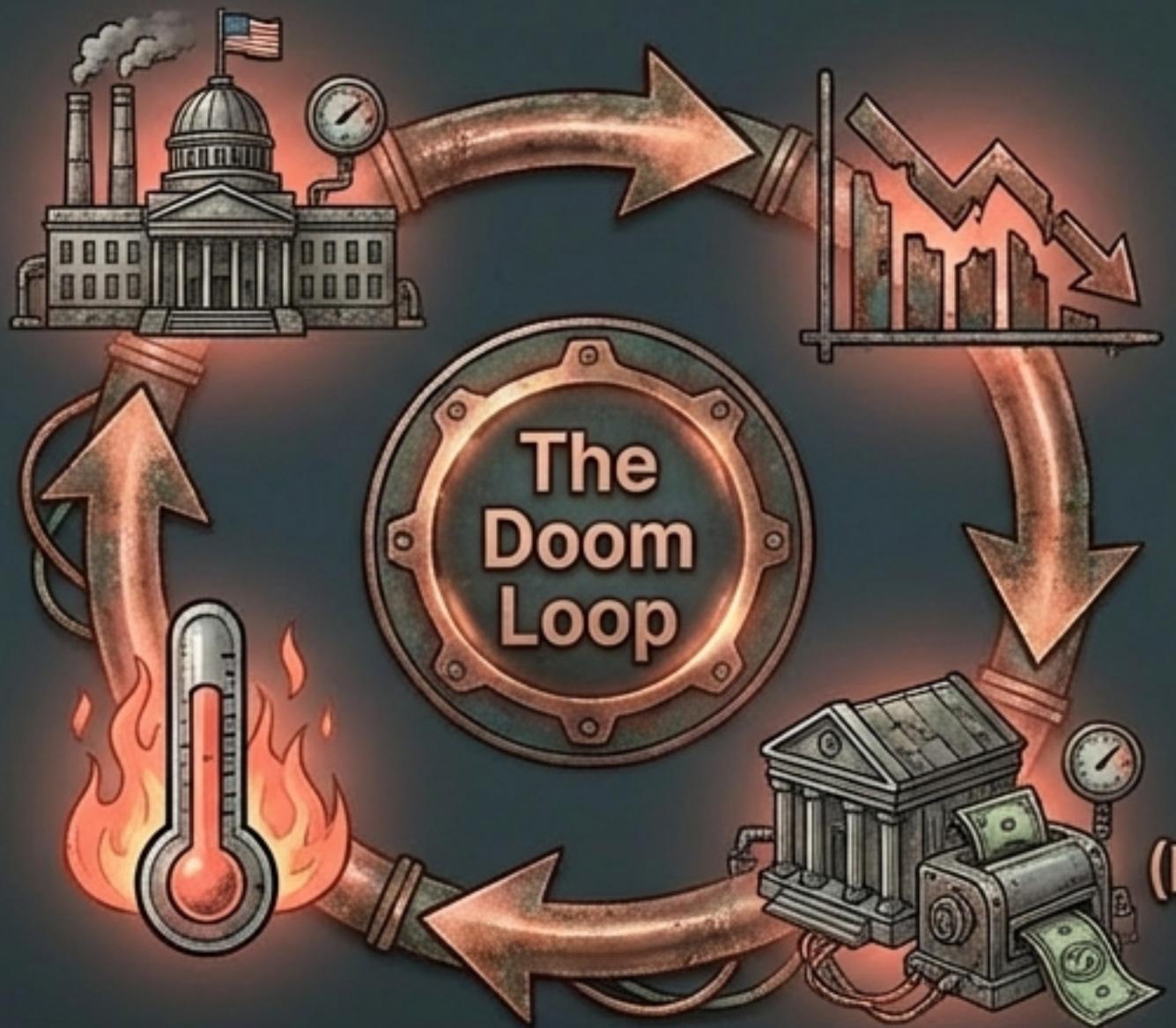
국채를 사줄 주체가 사라진 시장,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악순환

AI/인프라 투자위해
국채 발행
(Govt Issues Debt)

매수 주체 부재
→ 국채 가격 하락
(No Buyers)

유동성 공급 → 인플레이션
(12-18개월 시차)

연준의 단기채 매입
(Fed Prints Money / Silent QE)



Interest Rate Trap: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금리를
누르고 있지만, 풀린 돈은 반드시 물가 상승으로 돌아옵니다.

안전자산의 배신: 장기채(Long-term Bonds)의 붕괴

‘지난 40년간 금리는 내려가기만 했다’는 믿음이 깨졌습니다.

TLT ETF Price (2020-2024)



Paradigm Shift (패러다임 전환)

과거 40년의 데이터로
미래를 예측하지 마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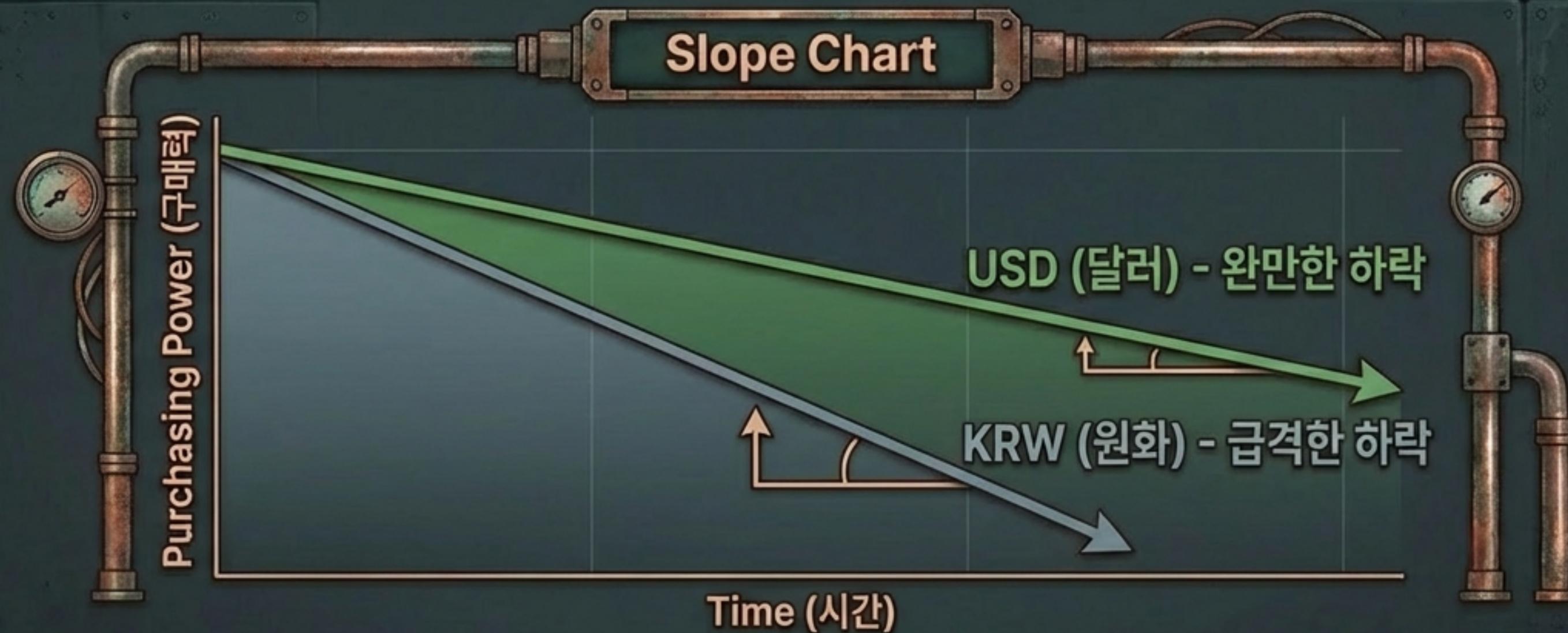
국채 발행량이 폭증하는 시대에
장기채는 더 이상
'무위험 자산'이 아닙니다.

물가가 튀거나 수급이 꼬이면
원금 손실 위험이 큽니다.

‘지난 40년간 금리는 내려가기만 했다’는 믿음, 더게상의 무위험 자산이에게
말라하도 수급먼, 국 채알 튀거나 일금하는 된어 깨졌습니다.

현금의 가치 하락: 원화(KRW) vs 달러(USD)

달러가 천천히 타는 양초라면, 원화는 활활 타는 장작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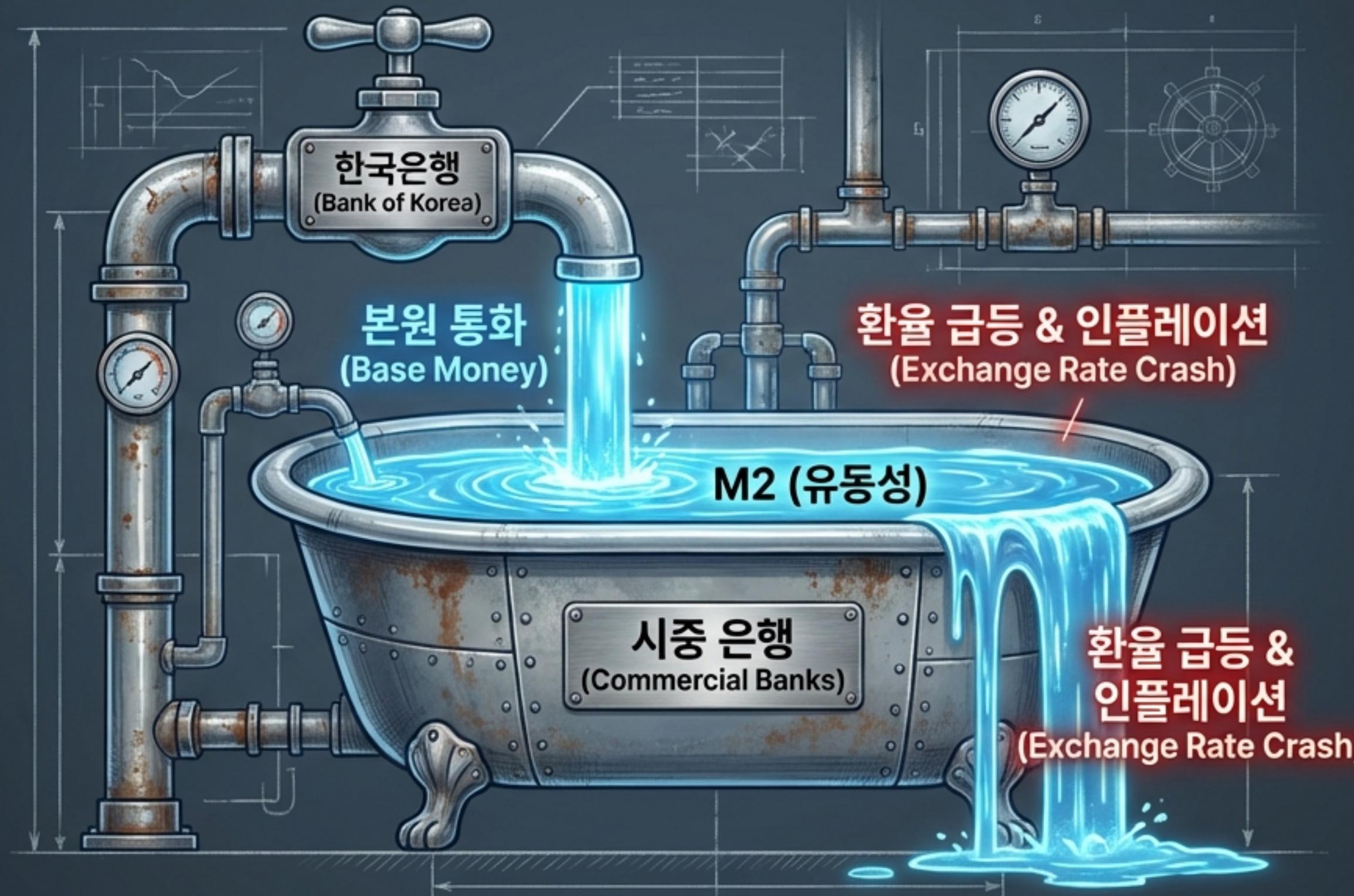


Key Insight

Relative Value (상대적 가치): 미국이 흔들리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더 빨리, 더 크게 무너집니다.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줄 유동성은 오직 '달러'뿐입니다.

욕조의 수도꼭지는 누가 틀었나? (한국은행의 변명)

M2 통화량 급증의 책임 소재와 환율 상승의 진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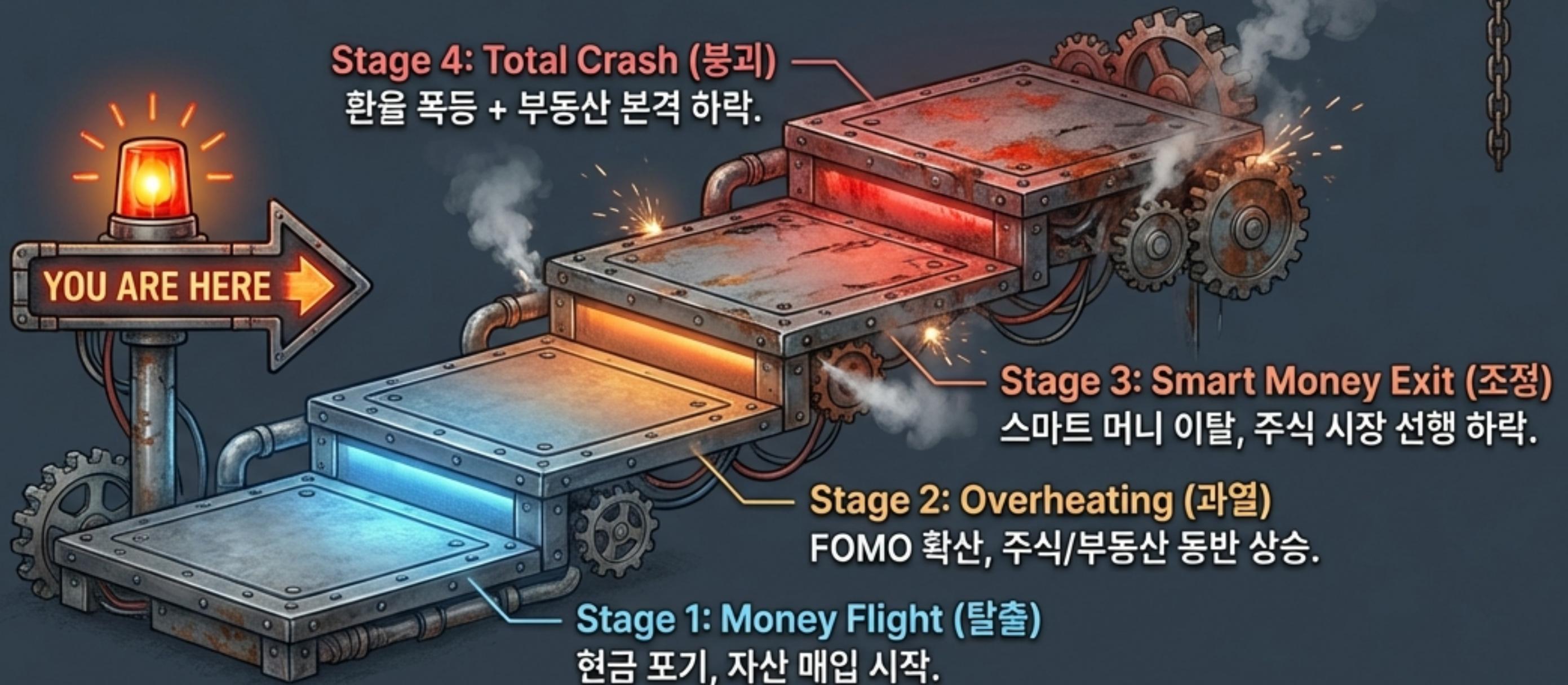


The Truth (진실):

- 한국은행은 M2 증가를 시중은행 탓으로 돌립니다.
- 그러나 2022-2024년, 미국이 긴축할 때 한국은 M2를 미국보다 4배 이상 빠르게 늘렸습니다.
- 수도꼭지를 끊은 것은 결국 한국은행입니다.

통화 가치 하락의 4단계 시나리오

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?



Status: 현재 한국은 Stage 2(자산 과열)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.
Stage 3로의 전환을 대비해야 합니다.

꼭지점의 신호: 대중의 참여

'주식 계좌 어떻게 만들어요?'라는 질문이 들릴 때



자산의 시차 (Asset Time Lag)



주식 (Stocks):

유동성에 가장 민감.
먼저 오르고 먼저 빠짐. (1-2년 사이클)



부동산 (Real Estate):

주식보다 한 템포 늦음. 더 길게 지속됨.
(5년+ 사이클)

주식이 꺾여도 부동산은 잠시 더 오를 수 있지만,
결국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 환율 급등과 함께 모든 자산이 조정을 받습니다.

생존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

불확실성의 시대, 무엇을 홀딩할 것인가?

✓ BUY (매수/보유)

✓ 미국 달러 (USD):

- 원화 붕괴에 대비한 유일한 보험.

✓ 미국 초단기 국채 (T-Bills, 1년 미만):

- 5%대 이자 수익 + 원금 안전성.

✓ 미국 주식 (US Stocks):

- 장기적 우상향 (과열 주의).

✗ AVOID (경계/매도)

✗ 원화 현금 (KRW Cash):

- 구매력의 지속적 상실.

✗ 장기 국채 (Long-term Bonds):

- 금리 변동 리스크, 원금 손실 위험 (TLT 등).

모든 전략은 거시 경제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.

결론: 유동성이 당신의 생명줄입니다

다가오는 혼란의 시기, 현명한 '현금'을 보유하십시오.

- ⚙️ AI와 에너지의 충돌, 부채의 역습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.
- ⚙️ 진정한 안전자산은 '달러' 그리고 '이자를 주는 단기채' 뿐입니다.

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가장 큰 기회가 됩니다.